

함께 꾸는 꿈

(격월간발행) 제144호 **2023** 7,8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 대저여,
<http://www.civilpower.org>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시편 72:2)

2023.8.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구시국기도회

04	권두언	가을을 기다리며 박경로
05	기획	대구시의회 1년, 시정 견제력 상실, 거수기 자초한 1년 좋은정책네트워크
09	노동현장은 지금	노란봉투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은정
11	Art & Culture	자카르타의 오래된 스케치 김병호
14	정치비평	8·15 유감 채장수
16	젠더비평	장애인의 성(sexuality) (3) 이승연
20	시정동향	범죄드라마 뺏치는 대구 구의원 사건... 그런데 전개가 이상하다 백정록
24	칼럼	부동산 이권 카르텔부터 해체하라 김윤상
27	특별기고	'위안부' 운동 30년 (1) 양정자
32	이달의 회원	백미숙 회원 인터뷰 김선희
35	애 이 사람	한은영 (참여광장 편집위원, 전 상근활동가) 김선희
37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40	재정보고	
42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무수한 튤립〉 안나 리들러(Anna Ridler)

안나 리들러(Anna Ridler)는 자신이 촬영한 튤립 수천 장을 시에게 삼입시켜 튤립의 개화장면을 동영상으로 구현하게 하였다. 문제는 이 영상 구현이 단순한 이미지의 조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에 따라 개화의 이미지가 계속 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긴 했지만, 이미지의 구현이나 코인의 가격변동에 따른 영구적인 변화는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며, 이것(시 드로잉)을 예술이 지니는 가치의 덕목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화가 김병호>

가을을 기다리며

박경로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냄새를 느낍니다. 찜통 같은 여름 무더위가 물러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머지않아 청명한 가을 하늘, 울긋불긋 단풍들, 웬지 사람들을 우수에 젖게 하는 가을비와 제가 제일 좋아 하는 낙엽 태우는 냄새도 즐길 수 있겠네요. 해마다 어김없이 오는 가을이지만 그래도 늘 반갑습니다.

‘불통’ ……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치 한 여름의 찜통더위처럼 말입니다.

무례, 무능한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있고 경제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회는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하여 사사건건 대립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심만 커지고 외교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국격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생’, 지금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을 믿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각자도생’,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짜증스럽고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위로하며 묵묵히 이 시대 우리 대구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잘 이겨내 봅시다. 시원한 가을날은 곧 우리에게 올 테니까요.

우리 회원님들,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풍성한 마음으로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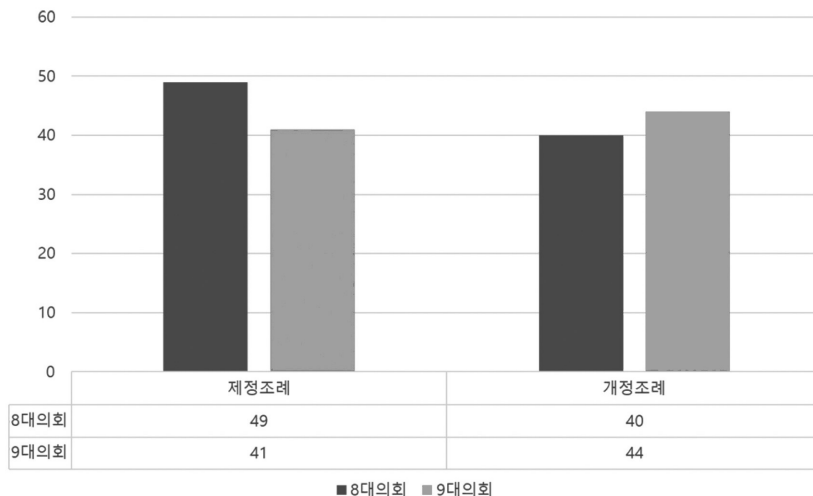
대구시의회 1년, 시정 견제력 상실, 거수기 의회 자초한 1년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 청부입법으로 빚바랜 자치입법 활동
- 정책 퇴행, 일방독주 공조한 거수기 의회 : 거수기 의결 20선
- 주민복지, 시민 안전 분야 입법 활동 진일보 : 좋은 조례 15선
- 시정질의회도 감소, 집행부 견제력 약화
- 의원 역할 상대적으로 잘 수행한 의원 : 김정옥, 김재용, 육정미

1. 대구참여연대가 제9대 대구시의회 1년간(2022.7~2023.6)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자치입법 활동, 시정질의회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 등 전반에서 8대 의회 보다 활동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시정 견제력을 상실하고 거수기 의회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 총수가 8대 의회의 89건(제정조례 49건, 개정조례 40건)에 비해, 9대 의회는 총 84건(제정조례 40건, 개정조례 44건)으로 청부입법으로 발의되었던 개정 조례안 7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9대 의회의 1년은 8대 의회 대비 조례 제·개정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대구참여연대에서는 이를 조례 제·개정 활동 평가로서 정리하였다.

〈제8대 vs 제9대 대구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 비교〉



〈청부입법 조례〉

조례명	비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기관 통폐합

2. 대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흥준표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을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의 문제 제기와 반대, 시민사회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리입법, 거수기 의결로 흥 시장의 시정 개악, 정책 퇴행, 일방독주에 편승하거나 공조하였다. 사실상 ‘거수기 의회’를 자처한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정책 퇴행·거수기 의결 20선을 선정하였다.

의안	문제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 교통복지 축소
	시내버스 무임승차 만70세부터 시작, 65세까지 낮춘다고 한 흥준표 시장 공약 파기
시민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정	청구인 수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 등 대구시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무력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개정	시정 슬로건 Colorful DAEGU를 삭제하고, Powerful DAEGU로 변경, 시민 의견수렴 없는 흥 시장의 일방적 변경을 시의회가 사후 승인
	도시브랜드위원회 폐지, 시장 마음대로 시정슬로건 등을 바꿀수 있게 함
시민원탁회의 운영·지원 조례 폐지	원탁회의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도 이를 개선해야 했음에도 아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봉쇄함
장애인차별금지·인권증진 조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폐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장애인 인권정책 후퇴
시정특별고문 운영 조례	타 시도는 시정자문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사실상 흥 시장의 정치자문기구로 인 원제한도 없으며, 활동 수당도 타 위원회에 비해 많음.
각종 공공기관 조례 개정, 통폐합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지원재단·여성가족재단·평생교육진흥원 통합, 목적과 역할이 다른 데도 일방적으로 통합하여 공적서비스 후퇴 우려
	시설공단과 환경공단 통합 역시 마찬가지
	도시공사를 도시개발공사로 변경, 주거복지 공공정책 후퇴, 영리성 난개발 우려.
	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진흥원·대경디자인진흥원 통합 역시 마찬가지.
	문화재단·관광재단·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콘서트하우스·미술관 통합, 문화 정책의 다양성과 문화 서비스 후퇴 우려.
도시공사를 도시개발공사로 변경, 주거복지 공공정책 후퇴와 영리성 난개발 우려.	

의안	문제점
각종 기금 폐지, 일반회계 통합 조례 개정	양성평등기금 폐지, 양성평등 정책 후퇴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남북협력 정책 후퇴
	사회복지기금 폐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책 축소 우려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후축소 우려
	인재육성기금 폐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후퇴 우려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65세 미만 카드 상품권 발행 금지 등 디지털 약자 불편 초래의 가능성을 열어 줌
대구정책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대구경북연구원 해산, 대구정책연구원을 분리 설립. 대구와 경북간 정책협력,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역량의 후퇴 우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	코로나19 유행시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경북대병원에 재위탁.

3. 그럼에도 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제정조례 41건 중 복지 관련 조례 11건(26.8%, 이하 소수점 2자리 이하 생략), 안전 관련 조례는 7건(17%)으로 총 발의한 제정조례 중 43.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1년 동안 다소 높은 비율로 복지와 안전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다. 8대 의회가 복지 5건(10.2%), 안전 4건(8.1%)으로 총 18.3%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9대 의회가 복지와 안전 분야 입법 활동에서 만큼은 진일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조례 15선〉


조례명	의원
대구광역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권기훈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권기훈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대현
대구광역시 쪽방 생활인 복지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옥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정옥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종필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이영애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숙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정일균
대구광역시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경구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하중환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하중환

4.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 견제와 통제는 잘 수행하였을까. 안타깝게도 이번 9대 시의회의 1년은 청부입법과 거수기 의결, 시정질의 감소 등으로 시정견제 역할은 크게 부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8대	9대	증감
5분 발언	62	72	+ 10
시정질문	25	20	- 5

9대 의회는 8대 의회와 비교해 5분 발언 횟수는 늘었으나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질문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시정질문이 감소했다는 건 시정견제 활동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별 상대 평가를 종합해 보면 김정옥, 김재용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 및 시정질의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육정미 의원은 조례 발의는 없었으나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시정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하였다.

이처럼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좋은 조례가 다소 발의되었으나 9대 시의회의 1년은 전반적으로 시정 견제력을 상실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의정활동은 지난 1년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과 좋은 조례 발의를 통해 폭주와 퇴행을 거듭 중인 홍준표 시정의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기대해 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 전면 투쟁 결의...대구본부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 농성 예고
영세사업장 많은 대구지역이 가장 절실하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국회는 법안 통과 능력...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천명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 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노동자와 국민의 입법청원 요건

인 5만 명을 단 며칠 만에 달성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천명한 만큼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 대구가 가장 절실하다.

대구지역의 제조업은 중소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주력이지만 중견기업이라 불리는 1~2차 밴드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제조업 사업장의 공통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제공

은 대부분 사내하청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 사내하청에 의존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구인사이트를 통해 특정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대부분 취업하고자 했던 회사가 아니라 인력공급 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당연히 해당 인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조업 현장에 투입된다.

제법 규모가 있는 제조업 공장에는 이런 사내하청 업체들이 몇 개씩 있다. 원청인 제조업 회사는 자기 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은 채용하지 않고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운용한다. 이유는 뻔하다.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인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 실제로는 원청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정규직과는 임금도 근로조건도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지역의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는 이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만든 노동조합이다. 금복주, 한국SKF실, KBWS, 효림산업, 전우정밀 등 대다수 사업장이 불법파견 사업장이었다.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고발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유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회사는 이를 피하고자 공정을 분리하고, 공장을 분리하고, 업무지시를 따로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면 그동안 제 직원처럼 부려 먹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감쪽같이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청 사장을 찾아가면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고, 원청 사장을 찾아가면 자기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되었다.

이런 부당함에 맞서 노동조합이 투쟁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폭탄을 던진다. 300억, 400억 들여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화적인 금액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바로 몇 해 전 대한솔루션 경산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한 사측에 맞서 총회 시간을 활용해 파업투쟁을 전개한 지회장에게 돌아온 것은 무려 1억이 넘는 손해배

상 폭탄이었다. 물론 터무니없는 수법이었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통장과 아파트가 압류되었다. 노동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 내는 반사회적 문제이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근거도 불명확한 천문화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은 이보다 더 절박한 민생법안은 없다는 마음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지만 당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의로 노조법 처리를 늦춘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서울에서는 국회 앞 농성과 전 조직의 투쟁을 진행하고, 대구지역본부도 매주 시민 선전전과 국민의 힘 시당 앞 농성(9. 18.~22. 1주일간)을 펼칠 계획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응원을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

자카르타의 오래된 스케치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하루를 잡아 자카르타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걷는 이방인은 외롭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사는 동네니까요. 새벽 빈민촌을 걸었던 제게 조심하라고 충고해준 친구의 말이 생각납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지요? 빈민이나 집시들도 먼저 웃으며 다가오니 금방 친구가 되고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기만 했습니다. 어딜 가도 싫고 좋음은 있겠지요. 편견이 그것을 가로막고 과대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조심할 부분은 있겠죠.).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종이 위에 볼펜 그림. 역사의 처절한 잔재들을 전시했던 한국의 독립기념관 같은 곳

입국일 늦은 밤 숙소에 도착한 나는 선잠을 잔 후 이튿날 새벽 산책을 다녀왔고, 오전부터 거리를 많이 걸었는데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자카르타 박물관입니다. 풍경 스케치를 잠시 하던 중 이곳으로 야외스케치를 나온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녀석이 호기심을 보이며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서서히 모든 아이가 제 등 뒤로 줄을 서더군요. 순식간에 아이들의 야외 미술 수업이 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나오신 여 선생님 두 분만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인도네시아는 회교도 국가입니다. 여인네들은 이국의 타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시건방을 떨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쉬는 시간도 드릴 겸 제가 그냥 미술 수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미난 이국의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미술 수업을 마치고 맨 처음 내게 다가온 아이에게는 한 장의 스케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어찌 그리 이쁘지요. 눈망울이 정말 커서 송아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깔깔깔 웃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든 아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여행 이튿날의 좋은 출발을 맞이합니다.

스케치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는



오로지 나를 위해(?) 모두 모여 연주를 들려주었던 집시 가족들과 즐기던 순간. 집시들 중 일본인이냐고 묻던 막내 꼬맹이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엄지를 척 세운다. 당시로서는 한류 영향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잘 몰랐을 텐데 이 요망한 녀석이 연주가 끝난 뒤 담배를 요구한다. 비록 한참 미성년이었으나 관념 따위 1도 생각지 않는 자유 영혼 김병호는 두 개비를 건네주고 말았다.

데 아주 오래된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식사는 가격이 한국의 고급레스토랑만큼 비쌉니다. 실내에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나무마다 벤치마다 젊은이들이 쉬거나 잠을 잡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는 극단적인 빈부 격차와 높은 청년실업으로 많은 젊은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풍경은 제게 왠지 모를 서글픔보다는 권태를 초월한 시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목을 축이고 걷고 걸어 큰 시장을 구경한 후 자카르타역으로 왔습니다. 가는 길이 오래전 한국 도시 외곽을 연상케 합니다. 메케한 공기, 오염된 하수 그리고 역전의 사람들. 눈에 익은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선 채로 오랜 옛날 대구역의 서정을 느끼게 해준 자카르타역을 한 장 그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호텔 풍경〉 노트 종이 위에 볼펜으로 그림

이제는 호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국의 하루는 조금 짧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야외에서 자라는 큰 풀들을 한 장 그렸습니다. 열대의 나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큰 나무만큼이나 이국의 여인들만큼이나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하루의 저녁이 온몸을 감쌌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야외 풀에서는 저녁을 먹고 수영하며 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장 그렸습니다. 그런데 참 기분이 묘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사는데 오늘 하루 동안 거리를 배회하며 보아온 풍경과 이렇게 다른 세상이 바로 옆에 존재하네요. 이런저런 상념이 떠 오르지만 좋은 추억만 기록하며 하루를 마감해 봅니다. 홀로 온 여행, 그런 나를 위해 한잔해볼까 싶지만, 술조차 취하지 않을 그런 밤입니다.

1999년 9월, 자카르타 둘째 날 

8.15 유감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더위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올여름은 여러모로 혹독하다. 더욱이 이번 더위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라고 하니 한숨이 보태진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EU 기후기후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밝히기를, 7월 들어 15일까지 온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을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직접 경고했다.

‘열대의 지구’는 한국에서 ‘열대의 통치’와 조우하면서, 대기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렸다. 두 달 전 같은 지면에서 필자는 우리 대통령의 그토록 무거운 신념인 ‘자유’의 진의를 심히 의심스러워하는 글을 썼었고,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60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

짧게 정리하기조차 쉽지 않다. 시스템의 붕괴가 야기한 오송 지하철도의 수해 참사와 ‘순살 아파트’, 수해 지원 해병대원 사망사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잼버리 사태, 양평군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교사의 자살을 통해서 비극적으로 폭로된 교육 현장의 붕괴, 연속된 ‘묻지마 살인’과 치안의 공백, MB 시절 언론통제 기술자의 화려한 귀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어진 한미일의 실질적 군사동맹,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 그리고 8월 24일 시작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 ‘윤석열차’ 사태의 쏙잔함에 비교될 수 있는 ‘용산 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논란’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2620>) 정도의 사소한(?) 사건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와 횡수의 사건들이 모두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발생했으며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고 이것의 원인을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서 무능한 야당에게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올시다. 오히려 말장난 같은 내용으로 채운 야당의 정부 비판 플래카드가 심히 한심할 뿐이다. 다만 발생한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요구할 뿐이다.

특히나 우울한 8·15이다. 8·15는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조선이 일본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면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경일로 제정된 날이다. 단아한 마음으로 기리고 기념하면서 하루를 지내도 모자라는 날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접하면서,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반대 8·15 대구시민걷기>에 동참하면서, 2023년의 8·15는 이래저래 유감스러운 날이 되어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8·15 경축사 전문을 살펴봤다. 상투적인 발언은 짧게 마무리되었으며, 대통령은 에두르지 않았다.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왕정국가로의 회귀 혹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국가’로 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자후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는 곧바로 전달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보편적 가치’나 ‘자유민주주

의', '평화', '번영' 과 같이 '금과옥조처럼 되뇌는 아름다운' 단어들의 도움과 함께, 족보도 없는 '공산전체주의' 나 '북한', '반국가세력' 같은 20세기 언저리의 노쇠한 단어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수렴하면서, 그의 페르소나인 '자유' 에는 여러 차례 밑줄이 그어졌다.

백번 양보해서 이것이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일국의 국가원수가 8·15에 행한 경축사라고 하기에 다소 민망하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반국가세력에 대한 엄정한 분노로 채워졌다. 그래도 8·15 경축사인데, 일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정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찬찬히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2022년 경축사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과거사 문제가 슬쩍 언급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이제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판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경축사에서 이러한 믿음은 북핵을 지렛대로 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더니,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는 북한의 납치를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여전히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일본과 침략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상호 '보편적 가치' (?)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수순일 것이다.

8·15 유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반대 8·15 대구시민집회>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염천의 휴식일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단 유감스러웠다.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 상당수가 혹시나 대통령이 적시한 '늘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으면서, 자유 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세력' 일 수도 있다는 헛된 각성(?)과, 그런 우리를 향한 지나가는 시민의 찰진 욕설이 8·15 유감에 포개졌다.

그러나 진정한 유감의 발원지는 따로 있었다. 일관성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은 일련의 수치가 '과학'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침묵을 강요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소수의 국가, 소수의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국의 소수 무리가 발생시킨 명백한 위험물을 '만물의 바다' 에 멋대로 폐기하겠다는 오만함 역시 그러하다. 또한 그나마 지금 당장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안심하라는 사기극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 모든 일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정부가 앞장을 서거나 혹은 암묵적 동의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그러하다.

24일 목요일 현재,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한다는 기사를 확인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같은 시간대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여전히 무엇이 쟁기인지 일본은 방출되는 오염수의 시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방류 기간도 30년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약이 없다고 한다.

문득 일전에 접했던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 라는 생소한 단어가 생각났다. 이것은 '나쁜' 혹은 '못된'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코스'(kakos)의 최상급인 '카키스토'(kakisto, 가장 나쁜)와 '지배' 를 의미하는 '크라시'(cracy)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가장 저열한 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 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트럼프를 통해서 재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다음의 칼럼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난하고 위협하며, 유권자 투표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 너무나 명백하게도 우리는 미국의 카키스토크라시, 즉 최악 인물의 정부를 보고 있다."

그나저나 '8·15 유감' 의 꼬트머리에 웬 카키스토크라시? 혹시 일말의 관련성이라도 있었나?? 

장애인의 성(sexuality) (3)



이승연 마고성인권연구소장

4.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도와 실태는 학교와 기관, 시설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성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성교육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성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동시에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전문 기관이 거의 없다. 필자가 장애인 성교육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과정이 너무나 절실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권과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격적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의 가치 추구하고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긍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갖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 몸의 주체가 '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의 양육자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성교육의 시작이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성적 존재로서의 발달을 시작해 가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성교육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어른이 되어가는 존재이고 책임성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연령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욱더 그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기회가 없어서 관계를 맺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장애아동의 성교육에서 가장 일차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양육자이다. 양육자들은 가정 안에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일상에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그래서 장애인 성교육은 그 양육자가 일차적인 책임자이자 가장 아동을 잘 이해하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그 양육자가 '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방관적이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회기가 짧을 때는 장애 당사자 교육보다는 장애아동 주변의 양육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육을 하면 더 문란해지거나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학자와 성 교육자들이 제시한 경험과 통계는 필자가 20여 년 성교육을 한 결과와

일치되었다.

Atwater, 1992; Zelink & Kim, 1982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행위 개시 나이가 성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고, 성을 금기시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보다 성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부모와 학교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원치 않는 임신의 비율이 더 낮았다.

Sol, 1981

성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적 가치관에 중점을 둔 성교육 프로그램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가족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Harker, 1981

성교육은 신체적인 또는 해부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행동 또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확실히 성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Kirby, 1980, 1992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피임하지 않고 성교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가치관 교육과 피임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성적인 위험들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반응했고,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Choi et al, 1999

임신과 출산의 과정, 피임방법, HIV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성병, 원치 않는 임신, 낙태, HIV 감염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성교육을 한 집단은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문제가 9%대로 떨어진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집단은 25%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되었다.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1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앞서 말했듯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많은 오해와 선입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된 지원방안에 대한 공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처럼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역시 다른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성적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우정과 이성 교제, 사랑, 자기 결정성 등을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장애인 성 교육자 중 한 명인 유니프레드 캠프튼(Winifred Kempton, 1993)이 제시한 발달장

애인의 성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자신들의 몸에 대해 배우
- 성적으로 이용당할 위험을 피하는 것
- 사교 기술을 배우는 것
- 자기의 능력과 욕구에 비례하는 최상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
- 사교 프로그램과 사교술을 배워 어울리게 하는 것
-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있음을 즐기게 하는 것
- 책임감을 배우는 것
- 피임을 도와주는 것
- 결혼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
- 죄책감이 없이 성에 관한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

또 Walker-Hirsh(2007)는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1. 성인의 자조: 화장실, 목욕, 몸단장, 옷 입기, 구강위생과 같은 기초적 과업
2. 해부학과 생리학: 생식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 자기 가치, 건강과 감각적인 관점에서 본 생식기와 그 기능에 대한 정보
3. 권한 부여와 자존감: 자기 가치, 사회적·성적 결정하기, 내정통제소, 자기주장과 자기 지시의 개념
4. 대인관계 기술
5. 사회성 기술: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알도록 만들고, 좋은 매너와 호감을 갖고, 갈등을 사회적인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6. 사회적이고 성적인 권리와 기회: 사회적으로 접촉할 많은 집단을 알고, 접근하며, 지역사회를 돌아다니고, 지역사회의 사회적·성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

성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동안 아이들은 유튜브나 광고, 음란물,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대부분의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또래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 정보를 얻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 인권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장애 인권단체들은 탈시설을 요구하고 정책 또한 탈시설로 방향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시설 안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의사소통 방법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을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를 못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아 성장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방해한다.

아무리 성교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삶을 사는 상황에서는 통합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기는 힘들다. 이에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과 자립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하며 장애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통합된 삶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과 예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 학생의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들과 교사들의 성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다. 주변의 보호자들과 일상에서의 성적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하고, 내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통로가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나타내는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공적 기관에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성교육’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성교육’이란 “성적, 의사소통, 그리고 사랑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적 존재로서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 …… 모든 사람은 성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생산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적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나 성적 존재로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특히 장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나 인식으로 인해 더욱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장애, 그것이 아니고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차별로 인한 태도들이다. 이에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9조에 명시된 만큼이라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장애인을 둘러싼 성에 대한 담론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성적 욕구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연구조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파편적으로 성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성 담론과 함께 시급한 것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교육이 일선 교사들의 개인적 자질이나 태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교육은 성평등과 인권을 기반으로 대상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 방법과 주변인들 부모나 교사들의 성 가치관을 어떻게 논할 것인지 등 실제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내포한 표준화된 성 인권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성생활을 향유하고, 사회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에 장애인의 성적 권리 옹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의무화’를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몇몇 회교국가나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UNESCO의 지침에 따른 성교육 방식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이 지침에 따른 장애인 성교육 교재나 방법 및 다양한 교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범죄드라마 뺨치는 대구 구의원 사건... 그런데 전개가 이상하다

유령회사 세워 구청 등과 불법계약했는데 출석정지? 배태숙 중구의원 징계 논의 논란

백경록 운영위원, '스픽스대구' 기자



▲ 4월 10일 오후 대구시 중구 의회 표지판 모습. © 연합뉴스

7월 27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중구의회 앞에서 부의장인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명과 안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각종 인쇄물 등을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 의원이) 그동안 발뺌하고 문제 제기하는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인쇄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오해라는 거짓 해명을 하며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공식 사과나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구의회가 이런 사실을 알만한 직·간접적 근거가 있음에도 배 의원을 비호하고, 안재철 의원은 과거 배 의원이 시민단체에 찾아와 거짓 해명하는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윤리특위위원장의 중립·공정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

당선 후에도 유명회사 만들어 구청과 거래

시민단체들이 언급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한편의 범죄드라마’ 와도 같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 의원이 구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운영해온 인쇄·간판 홍보업체는 중구청 등과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2건(3억3500만 원)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왔다.

계약내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물, 국회의원 보궐선거 홍보물, 코로나19 방역용 구내식당 비밀 차단 가림막,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다양하지만 주로 홍보·인쇄물에 집중돼 있다. 중구청의 거의 모든 부서와 계약해왔고, 가끔 보건소, 동사무소 등과도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배 의원이 2022년 중구의원으로서 당선되면서, 그의 회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업체가 돼 중구청·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배 의원은 유명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계약을 계속 진행했다. 유명회사의 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배 의원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이 유명회사에서 보낸 이메일과 동일한 점 ▲유명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매입한 점 ▲유명회사 대표가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배 의원 회사 직원이 유명회사 계약 건에 대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점(지역개발공채에 배 의원 아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점) 등으로 배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역개발공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등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대구시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1.5%만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중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유명회사와 배 의원 회사 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명회사의 납품 실적이나 인력·장비 등을 점검해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구민 기만한 ‘사기극’, 단죄될 수 있을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7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배 의원의 징계에



▲ 2022년 12월 19일 대구 중구청에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왼쪽부터), 김동현·배태숙 의원이 예산안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맨 오른쪽이 배태숙 의원 © 연합뉴스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안재철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한데다, 의원들이 자료부실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징계 양정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당시 몇몇 의원은 ‘제명’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명백한 법 위반을 지적하며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도 왜 징계 절차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걸까. 사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꽤 복잡다단한 쟁점이 얽혀 있다.

첫째, 관련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배 의원의 유명회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사업을 진행했던 중구 공무원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중구청 몇 개 부서, 중구의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동사무소 등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다 연계돼 있다.

배 의원만 징계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감사원은 “중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에둘러 지나갔지만, 상식적으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자가 ‘주소지에 상호조차 표기되지 않은 회사와 어떻게 거래하게 됐는지’ 물으니, 중구의회 사무과는 “명함도 받았고 상품을 찾다 보니 업체를 찾아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무원이 찾아낸 회사가 유명회사라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둘째, 사건 진상규명에 나섰던 의원들 역시 갑질 논란 등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일부 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배태숙 의원 건과 관련해 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의 서류를 점검하고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16일 성명을 내고 이들의 행위가 ‘의원 갑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재단의 업무보고가 부실해 사전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 배태숙 의원 회사 거래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서류 등을 열람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의원들이 절차를 거치며 갑질을 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결국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 한 의원은 이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한 명의 의원은 한 차례 더 징계를 받고 의장 등과 갈등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구의회 윤리위가 솜털 같이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면, 분명 이러한 한계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뜻을 모은 입법기관의 자정능력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답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배 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유령회사 사기극’은 단죄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2023년 8월 2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날개 달기

2023년 7월~8월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박경로 대표님 운영위원회 뒷풀이 지원
문창식 운영위원님 여름캠프 닭, 후원금 지원
박덕환 회원님 여름캠프 후원금 지원
임향/김현채회원님 여름캠프 숙박 할인 지원
배은경 회원 웹자보, 리플렛 제작 지원



감사합니다!

[7-8월 신규회원]

김영아 김미경 이교희 최경미 회원님 반갑습니다.

대구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권 카르텔부터 해체하라 고위 공직자는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해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였고, 2022년 대선 때부터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런 어이없는 일이 터졌다. 더구나 이번에는 의혹이 제기되자 '뜬금없이 백지화 → 슬그머니 재추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코미디처럼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한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팬데믹

이들 비리와 의혹의 공통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흔히 '개발이익'이라고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개발이 없더라도 용도 변경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므로 '개발이익'은 폭이 좁은 용어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확하다. 토지 불로소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든 또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리가 없다.



▲ 사진 출처, KBS뉴스 <[단독] 고속도로 주변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핵심 의혹은?>(2023.07.06) 방송 캡처

우리 국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땀이 아니라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풍토에서 살아왔기에, 나도 그렇게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꿈에 젖어 산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는 온 국민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팬데믹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 팬데믹’의 해법에 대해서는 필자의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 칼럼] "한국의 팬데믹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백신 있다 : '지대이자 차액세'로 안전·확실하게 집단 면역을"(2021/4/5 <평화뉴스>).

토지 불로소득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대 추구'(rent-seeking)를 일으켜 시장의 효율성도 저해한다. 또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는 수단인 토지보유세는 조세 중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이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도 왜 제도를 고치지 않는 걸까?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재산공개 때마다 드러나듯, 정책결정자와 부동산 부자가 결합한 '카르텔'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부동산 이권 카르텔이 문제

경제 용어인 '카르텔'은 같은 업종의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는 독점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행위'에는 명시적 합의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요즘에는 '카르텔'의 용법이 확대되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 담합, 유착 등의 관계를 모두 지칭한다. 이런 카르텔의 사례로 한덕수 총리를 들 수 있다. 한 총리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자격으로 20억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법조계와 로비스트가 맺고 있는 묵시적 카르텔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안다. 안타깝지만, 어느 사회든 지배계층의 명시적·묵시적 카르텔이 흔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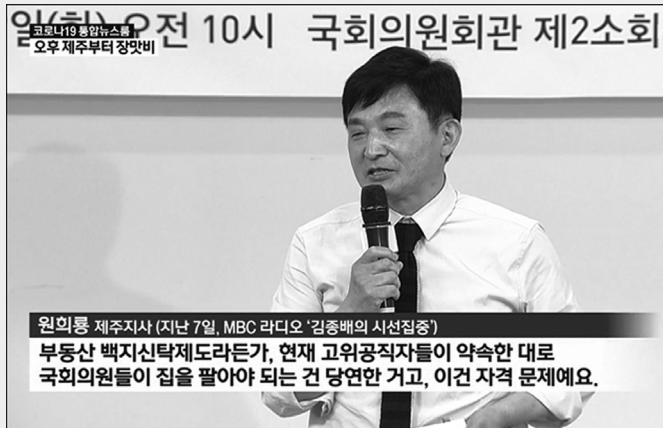
묵시적 카르텔 중에서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폐해는 너무나 크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부자, 거대 언론, 대형 건설업자로 구성되는 이 카르텔은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수 없이(?) 걸린 개인과 정권을 내로남불 격으로 비난하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를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니,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온갖 이유를 동원하면서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린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는 잘 봐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카르텔 해체의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 때부터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권,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민단체,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대상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 그런데 그의 목록에 부동산 이권 카르텔이 들어있을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오히려 후퇴시킨 것을 보면 아닌 것 같다.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려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런 개혁을 하려면 부동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첫걸음은 고위 공직자 집단을 카르텔에서 분리하는 작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가 카르텔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원론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 사진 출처. KBS뉴스 <다주택사 이해상충 상임위 배정...'부동산 백지신탁' 대안 되나>(2020.07.08) 방송 캡처

부동산 백지신탁은 ‘좌파’의 시샘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오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파’인 현재의 여당도 여러 차례 제안했었다. 2004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에 휘청거리던 시기에 박근혜 대표는 ‘천막당사’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는 4·15총선 직전 ‘실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11개 약속을 내걸었는데, 부동산 백지신탁이 들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토론회에서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고 공언했다.

‘노선 백지화 쇼’를 벌인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도 2007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주장했고, 제주도지사였던 2020년에도 이 제도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그런데 주식은 백지신탁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주식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은 무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식 카르텔보다 부동산 카르텔의 힘이 더 센 모양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한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진영을 넘어 시원하게 합의해 주기 바란다. 

<이 글은 평화뉴스에 2023년 7월 31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위안부’ 운동 30년 (1)



양정자 희망의 씨앗 기금 대표이사, 재일교포 2세

영화 ‘눈길’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 정분과 영애가 나눈, 아픔의 이야기인 동시에 할머니가 된 정분과 현재를 살아가는 소녀 은수의 연대 이야기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소녀 은수와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할머니 정분이 각자의 아픔을 말없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말하며 서로를 긍정하는 모습에서 나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 온 30년 동안 여러 자리에서 보아왔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일본에서 찾아온 성폭력 피해자, 돌아갈 곳 없는 10대 소녀 등 상처받은 사람들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순식간에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모습을 나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내가 실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본 그 장면들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위안부’ 운동 30년의 한 단면을 소개한다.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시작

1991년 8월 14일, 67세의 한국인 여성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임을 고백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였다. 이 고백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신

출두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세상을 움직인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용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여성들의 의지와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은 사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한국 여성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쟁취한 1987년을 전후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군사정권이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 등을 억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제시대에 정신대였다고 증언하는 김학순 할머니. ©정의기억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년 만인 1992년 11월 16일, 독립 사무실을 열고 회원들과 헌편식을 하고 있는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맨 앞). 윤 명예교수는 이호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들짚줄 오른쪽)와 함께 정대협의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한겨레

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도 우선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우선 과제에 도전한 여성들 사이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항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에게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지원 운동을 통해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1987년 발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기생 관광’이라는 일본 사업가들의 매춘 관광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교여연)라는 기독교 여성들의 단체였는데, 1988년 4월 한교여연이 기생 관광을 반대하며 개최한 ‘여성과 관광문화 국제세미나1’에서 이화여대 교수였던 윤정옥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고한 것이 한국 여성운동에서 ‘위안부’ 문제를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 보고를 접한 ‘참가자 모두의 충격과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일제시대 성노예로 강제연행된 여성들의 역사가 현재 기림비 관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역사와 연결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도서출판 한울, P38, 필자 옮김)고 한다.

이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표한 윤정옥 씨는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방 후 한국에서 홀로 끈질기게 조사를 이어온 학자였다. 윤정옥 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943년, 17살의 나는 이화여자전문학교 1학년 가정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당시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서 미혼 여성들을 정신대(挺身隊)로 끌고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했다. …… 1943년 11월 어느 날, 학교 당국은 1학년 학생들을 본관 지하 염색 교실에 집합시켰다. …… 일본인이 들어와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모인 학생들은 뻣뻣하게 인쇄된 글을 읽기도 전에 일본인의 지시에 따라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좌우 양 끝의 네모난 칸에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어야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권유로 나는 다음 날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

…… 해방 후의 서울에는 학도병, 징집된 사람, 강제 연행된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서울역에 가서 여성들을 못 보았는지, 여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다. …… 좀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내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당시 위안부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상기 동일서 P28~29, 필자 발췌)

식민지하의 조선에서 살았던 한 여성의 집념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폭력과 성착취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여성운동과 만났을 때 비로소 피해 여성을 받아들이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국제세미나 이후 한교여연 내에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37개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이 합류해 1991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었다.

'침묵'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교여연의 '여성과 관광 국제세미나'에는 일본에서 온 기독교성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6월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중군위안부라는 것은 민간업자가 군과 함께 데려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10월에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위안부' 문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정대협이 공식 출범하기 한 달 전인 1990년 10월 17일, 37개 여성단체는 연명으로 일본 정부에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 진상 규명, 위령비 건립,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교육 등 6가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문서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37개 단체가 정대협을 공식 발족한 후에도 일본 정부에 대한 답변 요구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였다.

공개서한에 대한 문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정대협에 어느 날 주한일본대사관으로부터 문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구두로 답변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정대협이 대사관으로부터 '구두로' 받은 '답변'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답변을 듣는 자리에 있던 윤영애 씨는 정대협 출범의 중심 역할을 했

던 한교여연 사무국장이었다. 한교여연은 기생 관광 반대 운동뿐 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도 오랫동안 힘써온 단체다. 일제 강점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군수공장에 동원되었다 피폭되어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피폭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교여연은 매년 피폭자가 직접 출연하는 연극을 통해 한국인 피폭자 문제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일본 대사관에서 돌아와 피폭자들의 연극 연습을 지켜보던 윤영애 씨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억울함에 피폭자들에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위안부'가 된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김학순 할머니였다.

1991년 7월, 정대협 사무실을 찾은 김학순 할머니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투쟁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대협이 더 당황하고 망설였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이 스스로 나설 경우 그 여성이 깊어져야 할 부담, 사회로부터 받게 될 낙인을 생각하니 쉽사리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망설이던 차에 김학순 할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리어 정대협을 재촉했고, 마침내 8월 14일 기자회견이 성사됐다. 김학순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업자가 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산 증인이 있다"고 호소했다. '민간업자가 데려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한 분노가 김학순 씨를 기자회견으로 이끈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김학순 할머니가 결코 50년 동안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사정을 알아줄 것 같은 피폭자에게 자신이 겪은 부조리에 대한 억울함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정대

협이라는 창구가 생겼을 때 김학순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10년간 재판 지원을 했던 재일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씨도 우리가 만났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던 일을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씨의 주변 사람들은 송 씨가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제보로 우리는 송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전후 일본에서 송 씨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중국까지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운 몸이야!”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조선인 여성이 중국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하면 당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던 환경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위안부’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송 씨는 송 씨만의 방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감정,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그녀들의 ‘목소리’는 기괴한 소리, 폭언, 잡음으로 무시당하고 묻혀버렸다. 한국에서 정대협이 결성되고, 일본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운동단체가 속속 결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대응

김학순 할머니의 등장은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려간 것’이며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 정부도 움직이게 했다.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씨를 포함한 한국 태평양전쟁 피해자 유족회가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고 원고단의 일원으로 도쿄지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지방법원에서의 공개 증언 ©정의기억연대

법원에 들어가는 김학순 할머니의 영상은 전 세계에 전달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사실 김학순 씨가 처음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한 8월 14일보다 일본에 와서 소송을 제기한 12월의 보도가 더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김학순 할머니의 호소에 감동한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일본군이 군위안소 설치를 지시한 공문서를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굴해 《아사히신문》 1992년 1월 11일자에 발표했고, 이를 뒤인 1월 13일 일본 정부는 마침내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1월 16~18일 방한한 미야자와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에 관한 정부 자료 조사를

시작해 1992년 7월 6일 1차 조사 결과를, 다음해인 1993년 8월 4일에는 2차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 일본 정부의 2차 자료 조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고노 담화'였다. 고노 담화는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밝힌 뒤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식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검토의 결과가 바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1995년 7월 19일 설립)이었다.

국가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후 '배상금'으로 명칭이 확정됐지만, 당초 '위로금' 보도가 피해자들에게 준 굴욕감을 해소하지 못했다)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기금을 받고 안 받고의 공방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운동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1997년 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같은 해 2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결성 등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법법정(2000년 12월)은 바로 그런 반발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 법정은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제 연대의 힘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를 다룬 NHK의 프로그램은 정치인(아베 신조 등)의 압력에 의해 조작되었고 이후 긴 재판에 시달리게 되었다.

2000년대는 일본 내 우익의 반발 속에서 언론과 교육이 위축되고 1990년대 초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이 점차 사라져가던 시기였다. 

(다음 호에 계속)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과 송신도 할머니가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계획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희망의 씨앗 기금



백미숙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회원님. 지면으로 인사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경 점촌에 사는 백미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경으로 가게 된 계기,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1998년 결혼하면서 남편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5년 뒤 직장을 그만두면서 함께 남편 고향인 함창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군이신 김 훈 회원님과 더불어 참여연대 창립 회원이십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인연도 궁금하고 두 분의 인연도 궁금합니다.(옆에 계시던 김채원 선배께서 아직도 김훈이 그렇게 멋있냐, 여쭙보십니다.) 대구에서 참여연대가 만들어질 당시 대구 지역 여러 민주 시민들이 모여서 서울 참여연대와 연계해 가며 많이 노력할 때 저도 남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함께 참여하는 정도였지만 많은 선배배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 그 이후 지역에 남아서 많은 일을 해주신 분들의 덕분에 지금의 참여연대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지만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선배배로 만났고 제가 입학했을 때 남편이 4학년 선배였어요. 과사무실에서 남편을 처음 본 날부터 마르고 큰 키에 검은 뿔테안경을 쓴 선배가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 그때는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운동권들이 학교마다 있던 시절이어서 제가 다니던 계명대에서도 집회를 하게 되면 제일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며 싸우는 구시대라는 투쟁 조직이 있었는데 남편이 대장이었어요. 민주화를 위해 용감하게 앞장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더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혼자서 좋아하다가 여자 선배님들과 진실게임을 하다 제 마음을 들키게 됐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전해지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전국 단위에서 투쟁하던 남편 덕에 아주 힘들고 긴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결혼 생활도 25년 가까이 되고 저와 남편도 많이 변했지만,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나 지금 나라의 상황에 대한 걱정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20대 때의 열정은 없지만, 항상 정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한결 같은 사람이라서 지금은 멋있다고보다는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동지 같은 사람입니다.

문경 자랑도 많이 해주세요~

문경은 산업단지나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들이 없어서 공기가 맑고, 문경새재가 있죠. 조선 시대 영남과 한양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여서 문경새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걷기 좋은 3대 산책로이고 요즘은 맨발 걷기 길로도 유명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은 주 5회, 저는 2회 정도 맨발 걷기를 하는데 숲속 길을 따라 앞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3개의 관문을 거치며 각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꼭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나는 적갈색의 흙을 재료로 방댕이 가마에서 구워내는 찻사발이 유명합니다. 문경 지역의 찻사발은 붉은 무늬가 특징입니다. 집집마다 찻사발과 다기가 거의 있다시피하고 차 문화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20~30만명이 다녀간다고 하는 찻사발 축제도 역시 문경새재에서 열립니다. 그 외에도 오미자, 문경 사과, 약돌 돼지 등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라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 지난번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현수막 행동' 때 멀리 문경에서 현수막 행동에 함께 해주셨어요. 최근 문경에 다녀오신 강금수 사무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관문에 '퇴진이 평화다' 라는 슬로건도 걸어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멋져요!) 상주나 문경이 경상도다 보니 아무래도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은데요 혹시 주민들의 항의는 없었을까요? ^^ 상주 문경 시민들의 정치적 분위기는 어떤지요.

대선 이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아주 많은 충격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분노도 느끼고 자책도 하고 지인들에게 실망하고 의를 끊는 일도 있었고 TV를 1년 이상 켜지 않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평생 이런 정부가 나타나 이런 시대를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지 않아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2월 한 달 동안 매주 서울로 촛불집회도 나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숨이 쉬어지고 가슴에 맺힌 울분이 조금이라도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 앞에 붙여 놓은 슬로건은 바로 촛불집회 때 받아온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이구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사실 상주·문경 지역은 선거 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새빨강입니다.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간당만 찍는데는 이유가 없고 논리도 없지요. 현 정권을 만드는 데 이곳이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말할 필요도 없이 답답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민주 시민들은 늘고 있는 듯합니다. 지인들하고도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고 민주당 당원 중에도 숨기고 사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답답한 곳이기도 하지요. 대구나 구미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곳도 조금의 변화는 있는데 어른들보다는 중고등 학생들이 그나마 일본 핵오염수 투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집은 두 집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라서 주민들이 문 앞에 붙여 놓은 슬로건을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택배 노동자분이나 집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보시라고 붙여 놓은 거지요. 아직까지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항의가 들어온다면 집에 모아 놓은 스티커로 도배를 해버릴 생각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2 굿,바이전'에서 사온 작품 자료집이 있어서 문 앞에 붙일 것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깐요.(제가 아주 단순 무식한 아줌마가 되었어요,

그 원인은 전적으로 윤가 부부의 영향입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기억에 나는 활동이 있다면요? 참여연대 활동 이것은 참 좋았다, 하는 부분도 좋고요.

대구 지역에서 힘겹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비가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 참여연대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활동을 칭찬하기보다는 ‘전문성’과 ‘끈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대구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28년을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바꿀 것이 많고 시정 활동에 감시할 것들, 밝혀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만 가지고는 알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든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들을 찾아내고 공직자 감시와 공공을 대신한 기자회견, 성명, 소송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데 참여연대의 전문성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확신합니다.

최근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설탕 없는 효모 발효 빵을 알게 되면서 작은 오븐을 사서 가끔 굽고 있습니다. 빵을 구워 친구나 지인들과 나누기도 하고 격주로 하는 민주당원 모임에 간식으로 가지고 가기도 하면 아주 좋아들 하니 자꾸 여러 가지 시도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없이 일이 바쁘다 보니 여유 시간이 별로 없어 딱히 취미랄 것은 없지만 남편을 따라 운동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 정도가 취미라고 하겠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안정적으로 세워진다면 마음 편히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학원 일이라는 게 제약이 많아 쉬는 시간이나 휴가가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하루 이틀 쉬더라도 요즘은 촛불집회나 좌우합작집회도 기회가 되면 가고 있어서 서울이나 포항 등으로 다녀오기도 하다보면 곳이나 외국 여행은 쉬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동유럽, 서유럽 몇 나라들은 코로나 전에 혼자서라도 패키지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앞으로 시간을 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나 가보지 못한 해외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보고 싶고 은퇴 후 지중해 크루즈여행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권이 바뀌어있겠네요.)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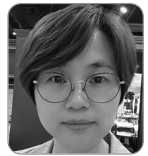
처음 참여연대를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잘 지켜 갔으면 좋겠고, 대구참여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와 인권을 위해 또 공익과 정의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니만큼 직원과 활동가들의 경제적 복지가 더 보장되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께어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져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자원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더 탄탄한 시민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은 영

참여광장 편집위원, 전 상근활동가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셨을거 같아요. 활동기간을 포함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구참여연대 소식은 멀리서나마 SNS 등을 통해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 다. 이제 저를 기억하실 분이 몇 분 없을 것 같은데 그 래도 대구참여연대는 저에게 친정과 같은 곳이라 늘 애 정을 가지고 보고 있답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결혼 전 까지 7년간 상근활동을 하면서 저의 20대를 함께 한 곳이지요~

현재 울산에 거주하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시다 울산으로 내려가신 상황도 궁금하고, 울산 으로 가신 후 생협 활동 등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평화 운동 관련 활동을 하셨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황은 어떠신지요.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다들 걱정이 많으 셧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활동하다가 내 려가면 우울증 걸린다. 그냥 대구 있어라’ 등등... 염려

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이창화 회원이 부산에 내려가면 아이키우면서 활동할 수 있는 생협이란 곳이 있으니 그 곳으로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협활동 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산서는 남부산아이쿱생협의 상임이사를 하다가 울산 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생협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울 주아이쿱생협의 이사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도서관, 협동조합 마을카페 등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생협 활동은 지역 에 거주하는 생활자인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는 만큼 생 활밀착형 활동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활동 가들은 열정이 높아 제가 단체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을 이들과 함께 원 없이 재밌게 했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흐뭇하더군요. 대구참여연대에서 배운 지역 사회와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를 조합원들과 함께 했 습니다. 울산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탈핵울산공동행 동 상임대표,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 등 생활 활동 이 조합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 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했습니다. 지금은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울산 동구 남목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일

을 하고 있어요.

대구참여연대 창립회원입니다. 참여연대와 인연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95학번입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IMF가 터진 직후였어요. 그때는 ‘저주받은 95학번 평생 취직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딱하니 걸릴 때였습니다. 당시 정부지원 인턴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회사에 취직할 생각은 없었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구참여연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창립회원은 아니구요. 당시 대구참여연대엔 이미 쟁쟁한 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지요. 금수 선배, 종화 선배, 영숙 선배, 혁장 선배, 중철 선배 등등.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는 6개월간 월급을 정부지원으로 60만원을 받았던 반면 그 당시 상근간사의 월급이 20만원이었습니다. 정말 열악했지요. 제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월급받으면 사무실에 라면 한 박스 사놓고 한턱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000년 낙천낙선운동, 휴대폰요금인하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효순미선미군장갑차압사사건, 대구지하철참사사건 등 굵직한 활동에 늘 대구참여연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시민사회 활동의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활동의 경험이 지금도 제 삶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당시 참여연대의 소식지 ‘참여광장’의 편집기자도 하시면서 편집위원들과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활동하셨다 들었습니다. 편집기자로 활동하면서 특별했던 회원인터뷰나 기억에 남는 기사,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처음엔 편집기자로 활동하다가 편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참여광장 발간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대구참여연대의 재정구조

상 소식지 및 잡지의 발행도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기획하면 대학생 기자단이 순수 자원활동으로 취재하는 식이었죠. 사진을 잘 찍는 회원이 포토스토리를 작성하고, 수준 높은 칼럼진도 있었고 초기엔 영숙 선배가 매킨토시를 배워 편집을 하다가 이후엔 이 또한 편집을 잘하는 회원이 자원활동으로 책자편집까지, 어디하나 편집위원들의 손이 안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참여광장 편집을 끝내고 함께했던 김은경 회원과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지금도 그때 함께했던 편집위원들이 보고싶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제가 기자단으로 참여하면서 썼던 기사들입니다. 참사현장인 중앙로도 직접 가서 보고 유골 수습 현장, 유가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 대구시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무능하게 사고를 수습했는지 등을 직접 취재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울산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울산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운동에 혁혁한 활동을 하셨다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노옥희 교육감님에 대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당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등교를 직접 행기는 등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 함께 하시면서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요.

제가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임기를 마친 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을 때라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구요. 고 노옥희 교육감님과는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활동을 같이 했었고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이라 함께했던 연대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고 노옥희 교육감님이 당선되고 난 후 울산교육이 발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의 교육복지를 최상으로 끌어올렸고 비리로 얼룩졌던 울산교육을 최고의 청렴

도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재선에 도전하신다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2022. 6. 1 지방선거운동에 함께 하게 된거죠. 고 노옥희 교육감과 선거 운동 현장을 같이 다니다보면 아이돌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들 가다가도 돌아보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노옥희가 교육은 잘했다'는 말이 어른신들 입에서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현장에서 지지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수세로 돌아서던 울산에서 진보 교육감이 재선이 된 거였죠. 고 노옥희 교육감님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며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고, 코로나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만날 때면 큰 키를 숙여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 동구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 입학 문제로 논란이 일어 다른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 교육은 당연히 울산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 차례 동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설득했습니다. 입학 당일도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하여 등교를 축하하는 선물을 일일이 나눠주고 직접 손을 잡고 학교로 갔었죠.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제가 1년 사이에 교육감 선거운동을 두 번 치르고 나니 약간 정신적으로도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여서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걷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남알프스 8봉을 하나하나 오르다보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5월 영남알프스 8봉을 완등하고 나서 지금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활동을 소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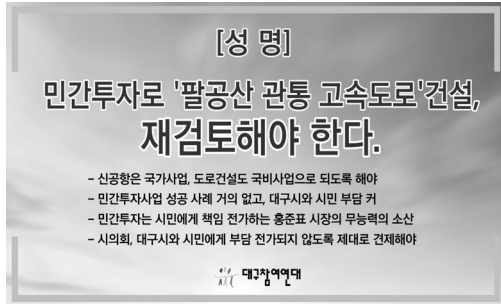
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창립 당시 대구는 큰 변화의 바람과 그것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그것이 대구참여연대 활동의 큰 흐름과 방향, 목표를 만들어 줬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창립 당시와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 양상이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의 문제점 혹은 바라는 점, 이것만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요.

대구참여연대가 지금까지도 대구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하에서는 더 많은 과업이 주어지고 있음이 멀리 울산에서도 보입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그 활동을 함께할 회원과 활동가들의 신규 유입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권력 감시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딱딱하고 문턱이 높게 느껴집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활동력을 올릴 수 있도록 생활과 밀착한 말랑말랑한 활동들도 폭넓게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7~8월 활동소식)

- 8.31 [성명] 민간투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한다
- 8.23 [성명]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
- 8.16 [연대회의] 새로운공공병원위원회 집행부회의
- 8.15 [연대행사] 815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대구시민 걷기대회
- 8.10 [회의] 8월 운영위원회
- 8.10 [보도자료] 대구시민단체, 배태숙의원 등 중구의원, 공무원 경찰에 고발
- 8.07 [연대행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시국 미사회참여
- 8.07 [논평] 배태숙의원 제명 부결시킨 중구의회 규탄
- 8.04 [논평]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본회의 제명을 촉구한다
- 7.28-29 [회원캠프]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 영덕 옥계계곡
- 7.27 [기자회견]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의원직 사퇴 및 안재철의원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 촉구
- 7.22 [성명] 대구시민이 묻는다! 국민의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 7.21 [성명]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감사원 결과에 대한 입장
- 7.20 [기자회견]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 반대, 조례취소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 7.18 [토론회] 일본시민운동가(나카가와 미유키)초청 강연회. 대구공익센터상상홀
- 7.17 [성명]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홍시장, 대구시정 맡길수 있나
- 7.12 [기자회견] 대구시 집회시위 자유침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
- 7.10 [연대회의]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회의
- 7.05 [토론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 방류, 대구시민은 안전한가
- 7.04 [보도자료] 홍준표시정 1년평가. 홍준표 시정 1년은 토행과 폭주의 시간
- 7.01 [회원모임] 걷기모임-동구 팔현습지 걷기



8.31 [성명] 민간투자자로 '팔공산 관동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 한다



8.15 [연대행사] 815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반대 대구시민결기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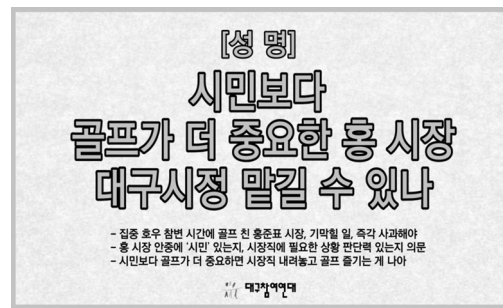
8.10 [고발장 접수] 배태숙의원 등 증구의원 - 공무원 경찰에 고발



7.28-29 [회원캠프]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 영역 옥계계곡



7.27 [기자회견]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의원직 사퇴 및 안재철의원 윤리위원장직 사퇴 촉구



7.17 [성명]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흥시장, 대구시정 말길 수 있나



7.18 [토론회] 일본시민운동가(나카가와 미유키) 초청 특별 강연회



7.01 [회원모임] 검기모임-동구 팔현습지 걷기

2023년 7, 8월 본부 재정운용결과

수 입					지 출																		
항 목	2023년 7월	2023년 8월	비율	항 목	2023년 7월	2023년 8월	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555,000	615,000	7.4%	인건비	급여	7,531,740	7,531,740	61.9%														
	CMS회비	7,005,000	6,980,000	84.4%		사회보험료	776,050	797,020	6.5%														
	연회비	-	-	0.0%		상여금	1,200,000	-	0.0%														
	평생회비	-	-	0.0%		퇴직급여	-	-	0.0%														
	소계	7,560,000	7,595,000	91.9%		소계	9,507,790	8,328,760	68.4%														
후원금 수입	일반후원금	600,000	150,000	1.8%	일반관리비	장기차입금상환	559,482	559,948	4.6%														
	사업후원금	-	-	0.0%		지급이자	4,679	4,213	0.0%														
	청년활동기금후원금	-	-	0.0%		사무실임차료	800,000	800,000	6.6%														
	해피빈모금	-	252,000	3.0%		정보통신비	177,778	176,949	1.5%														
	후원행사	-	-	0.0%		사무용품비	30,910	1,000	0.0%														
소계	600,000	402,000	4.9%	소모품비	20,000	-	0.0%																
기타수입	광고수입	-	-	0.0%	냉난방비	-	-	0.0%															
	이자수입	-	-	0.0%	도서구입비	50,000	35,000	0.3%															
	기타수입	220,000	200,000	2.4%	지급수수료	76,403	74,873	0.6%															
소계	220,000	200,000	2.4%	수도광열비	93,430	123,560	1.0%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580,000	20,000	0.2%	기타경비, 세금	-	132,500	1.1%															
	명절수익사업수익	-	-	0.0%	소계	1,812,682	1,908,043	15.7%															
	기타사업수입	-	-	0.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80,440	-	0.0%														
	하계캠프수입	550,000	50,000	0.6%		소식지제작비	-	800,000	6.6%														
소계	1,130,000	70,000	0.8%	기타홍보비		43,900	-	0.0%															
소계	1,130,000	70,000	0.8%	소계		324,340	800,000	6.6%															
차입금	단기차입금	-	-	0.0%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320,000	175,000	1.4%														
	장기차입금	-	-	0.0%		일반사업추진비	1,920,700	303,000	2.5%														
	소계	-	-	0.0%		회원조직사업추진비	440,000	240,400	2.0%														
수입합계	전월이월금	총 계	100.0%	순지출총계		15,601,712	12,175,003	월별 수입지출차액분	- 6,091,712	- 3,908,003	통장 잔액	10,417,440	6,509,437	총 계	26,019,152	18,684,440	100.0%						
																		7월 재정 내역	8월 재정 내역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44건/일반후원금 2건의 (정현수, 배은경)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48건 / 일반후원금 2건
																			CMS 회비	469건		CMS 회비	464건
																			하계캠프수입	하계캠프 회비, 하계캠프후원금(문창식, 박덕환)		해피빈수입	공익소송 해피빈 모금 수입
																			일반사업수입	일반시민활동가초청강연회분담금,회비/공익소송비		일반사업수입	공익소송비(2만)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외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외
					지출													사회보험료	6월분 사업자부담분	지출	사회보험료	7월분 사업자부담분	
																		상여금	장기차입금상환/ 이자비용미지급		장기차입금상환	8월분상환/ 이자비용미지급	
																		정보통신비	금용결제원, 인터넷, 전화		정보통신비	금용결제원, 인터넷, 전화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귀어축제, 전세기대책위분담금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핵오염수방류반대현수막연대																				
일반사업추진비	기자회견현수막/공익소송리플렛제작/일반시민활동가초청강연	일반사업추진비	핵오염수방류 반대 시민견기대회 비용																				
하계캠프비용	하계캠프지출	청년활동기금사업비	청년활동모임1회																				
		기타, 세금	회비반납 및 주민세 납부																				

※ 회원 · 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박근식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은수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운 고영문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광연하 광이화 광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기동 권기혁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 권상구 권석우 권영래 권영태 권옥자 권추경
권택홍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후선 금상렬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규중 김기용
/김선희 김나영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용 김동창 김동현 김명하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민
서 김민재 김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혁 김병호 김보성 김보영 김보임 김보심 김 삼/한효정 김상숙 김상호 김석수 김선우 김선주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인호 김연희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아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윤상 김은경 김인하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옥 김주태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환 김재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석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섭 김희운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경화 도교동 도근환 도영주 도운백 류덕계 류소정 류영준 류영철 류지호 류태하 문용곤 문용우 문종상 문창식
문혜선 민정식 민혜진 박건상 박건옥 박경로 박경순 박경찬 박금동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선우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영경 박영복 박옥순 박원순 박은경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종률 박지용 박지운 박찬문 박찬미 박찬영 박창호 박정진 박현탁 박호석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차흠 변영숙 서덕교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상호 손성봉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성범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완
/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덕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숙희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종석 신창섭 심순경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하 안상진 안소택 안영배 안정임 안철택 안현수 양선진/임호성 양승문 양영일 양진오 양 희 엄창욱 오문섭
오병현 오신타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영진 유용준 윤명화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상호 윤성아
윤소원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이건희 이경미 이광모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남수 이동민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명은 이미지 이병동 이상돈 이상목 이상무 이상수 이상술 이상원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수도 이수수 이승연 이승익 이연주 이영도 이영운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장근 이장환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화 이종길 이종득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영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천희 이철환 이태영 이태우 이풍탁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옥 이형규
이형석 이흥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이효진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종설 임 향 임현수 임현태 장밝은 장성수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창훈 전홍철 장갑환 정강미 정강미 정정열 정규진 정길은 정대화 정상기 정수현 정승필 정예은
정용태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섭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지욱 정지혜 정창수 정현숙 정해숙 정호원 조광진 조덕호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현주 조희래 조희재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차광호 차우미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취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권호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미나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에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우식 최유리
최은경 최재혁 최정옥 최종태 최철영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경국 한상훈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현희 허노목 허은경 허 중 현호성 홍상익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상천 황순규 황순오 황양은 (520명)

연회비 신순임 최명규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 위 명단은 2023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통권 144호 **2023** 7, 8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3년 8월 28일, 통권 144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 동 대 표 || 엄창옥 이두옥 정혜숙 박경로
운 영 위 원 장 || 류영준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 박호석
운영위원장 : 양희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김형진
위원 : 강금수 조영태 정은정 김선희 장은우
편집담당 : 김형진

전시공간구성전문기업

PSPACE EXHIBITION



곽현수 회원
010-3516-0160

(주)피스페이스 www.pspace.kr
본시·공정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12길 14 3B
Tel 053.755.2271 Fax 053.755.2273
E-mail kwag1379@hanmail.net

웃음도 활짝 건강도 활짝
활짝요양원

원장 박청진 회원

대구시 동구 신서동 534-2번지 진성빌딩 4층
T. 053-427-8318 F. 053-964-8328
M. 010-3189-8328
e-mail. cjpark2016@naver.com



미루여행사 Maru

(주)미루여행사

김기용 회원

국내·외 항공권 / 국내·외 패키지 여행
국내·외 단체여행 / 국내·외 신혼여행
국내·외 답사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대구참여연대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 053) 257-6599 / 010-4503-1573
E-mail : ddohansaram@hanmail.net

수경한의원

서대현 회원
010-5719-77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5-1
범어역(우반) 유철상가 3층 308호
TEL : 053) 754-7791
053) 754-7790
http://수경한의원.kr
http://omsk.co.kr



(주)성무모터스 pitcrew.kr



피트크루 • PIT CREW는

자동차 유지정비에 관한 어떤 분야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POR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국내차량에 대해서는
정직, 친절, 상심한 기술력을 약속 드립니다.



박선형 회원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489 월성동 1801-1
T. 053) 565-1696
F. 053) 565-1697

대구참여연대 회원가게

가게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사무실(053-427-9780)으로 연락주세요.

올해까지 회원가게 응원을 위해 무료로 광고중입니다.^^



신숙경 회원

땡초비빔된장/땡초강된장

밥에 넣고 쓱쓱쓱!
반찬걱정 NO! 혼밥·여행에 딱!
재래숙성된장과 청양고추로 만들어
맛있게 매운
4無첨가 웰빙 비빔된장 양념!



NAVER 땡초비빔된장 검색

한칼식품/대구 북구 칠성로35/ ☎053-354-1188



Go Beyond
IM DGB

새로운 시대
금융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지난 55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DGB 금융그룹이
금융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이제 돈을 넘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금융으로
가진 것을 경쟁하던 시대를 넘어서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금융으로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금융으로

금융은 여기까지 라는 고정관념
그 한계를 DGB가 넘어서겠습니다.